

지금은 안과 밖이 협력하여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



· 고려대 언론학 박사
· 아주대 에너지공학 박사

전환이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 또는 핵연료 가운데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흡수하여 핵분열을 일으키는 플루토늄 239로 변화하는 일이란 뜻을 갖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그동안 덮어 두었던 원자력 발전의 시대적 역할을 일깨우고, 원자력계에게 멈췄던 주변과의 상호 작용을 독려하는 것은 예정된 운명일지도 모른다.

위장된 희망에 현실을 담보 잡힐 수는 없어

에너지 전환은 정책의 급진적 변화 이전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한다. 이는 성장 특히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다른 차원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비로소 에너지 전환을 향해 한 걸음을 뚝 수 있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지할 만하며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근거를 갖추고 지정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문화적으로 다양화된 발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 없다. 이 중 어떤 것은 정직하게 포기해야 가능한 얘기다. 그래야만 위장된 희망에 현실을 담보 잡히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될 편가름을 무한 반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덜컥 선언해 버린 에너지 전환은 한강을 건너려고 한겨울 준비

운동 없이 옷 입은 그대로 뛰어든 것과 다름없다. 한강을 건너려는 것 자체가 틀렸거나 비난 받을 일 아니다. 건너야 한다.

우려하는 것은 기초 체력도 준비 운동도, 게다가 건너야 한다는 강력한 공감 형성의 노력마저 생략한 채 얼음물에 뛰어든 터라 혹시라도 힘에 부쳐 중간에 가라앉게 될까하는 것 바로 그 뿐이다. 그래서 남들 다 건너 환호할 때 우리는 단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조차 없었을까 겁이 날 뿐이다.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의 역할이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안과 밖에서 견인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구조대원으로, 보이지 않는 동력 제공의 원천으로 국가의 토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사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원자력계가 지켜야 할 대상은 원자력계가 아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타분야에 대해 적대감을 표시하는 오류는 과감히 던져버려야 한다.

원자력계가 끝까지 지켜야 할 대상은 국가의 토대와 국민의 생명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계 스스로가 인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만 본질을 벗어나는 낙인 찍기에 동원되어온 연결과 연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원자력계 스스로 각고면려(刻苦勉勵)를 지속해야 개인을 집단에, 집단을 비하적 비난과 연결 짓는 인식과 단절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묻는 것이고 답을 찾는 것

위험 문제에 대해 합리적 이견이 있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신호다. 다만 여기에 나쁜 의도가 묻어 비틀어지는 것이 문제다. 위험과 안전 문제는

기술 영역과 운영 영역, 그리고 인식의 영역으로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 이견이 생기는 부분은 입체적으로 보기보다 한 면만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의 눈에 보이지 않거나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 일단 틀렸거나 거짓말한다고 속단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안전은 옳고 그름을 다룰 게 아니라 각각의 각도에서 보이는 위험을 기술과 법과 제도와 연구를 통해 발현되지 않도록 함께 방법을 찾고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과제이다.

이는 원자력계 혼자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계는 스스로의 족쇄를 풀고 바깥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과감히 섞일 수 있어야 한다.

걱정이란 것은 근거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적절하거나 부적절할 수도 있으며 합리적일 수도 있고 과도할 수도 있다. 우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걱정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사 그 걱정이 합당하지 않다하더라도 걱정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에 대해서는 무엇에 관련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촉발되었는지, 원인과 대상이 일치하는지 물어야 한다. 제대로 알아야 걱정의 무게를 덜 수 있는 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어야 하는데 묻기 시작하는 순간 상상하기 힘든 공격이 가해지곤 한다. 그리고 그 공격성은 정당방위로 포장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 특히 개인을 겨냥하는 것은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다. 대신 단지 물었다는 이유로, 그들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는 까닭으로 감정적 용단폭격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을 감싸 안아야 한다. 잘못을 감싸야

한다는 게 아니다. 정당한 용기가 난파되는 것을 불똥이 튕가 못 본 척 하진 말아야 한다는 호소(號召)다.

중요한 건 묻는 것이고 답을 찾는 것이다. 그래야 원자력계가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국민의 새로운 기대를 개척할 수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유 가치를 만들어가야

곧 문이 닫힐 곳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 곧 문이 닫힐 곳이지만 마지막까지 남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는 가혹하다. 지금껏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그 안에서 흘렸던 땀이 존중받기는커녕 그 문 안에, 심지어 그 어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눈 흘김을 당하니 점점 더 움츠려드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가치를 발휘하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게 어떤 것이든 아예 문을 폐쇄하고 못을 박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 밖에 있는 누군가가 그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은 나서서 상황을 바꿔낼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문 안의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땅에 떨어진 사기를 스스로 끌어올리고, 그간의 착오를 인정하며, 이 시대에 걸맞은 사명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를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전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근 적도 있다. 이제는 그 문을 과감하게 박차고 나와 그 어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국가의 토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생각을 나누고, 협력하여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일에 구성원의 하나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원자력의 미래가 달려 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에 틀림없다.

에너지 전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다보면 돌발, 가시밭길도 나오고 어쩌면 중간에 길이 없거나 끊겨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그동안 덩불에 가려있던 탄탄대로가 펼쳐질 수도 있다.

원전은 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여파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토대에 심각한 상처를 내지 않도록 버티주는 비장의 카드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달리는 올림픽 성화는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심지어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꽃을 지키는 성화봉이 있기 때문이다. 원전의 역할이, 원자력계의 과제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다. 🍀